

1990년대 전경린 소설에 나타난 여성 범죄와 법의 은유

-전경린,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을 중심으로

이한나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목차

- 1 들어가며
- 2 전경린 소설의 ‘위기’ 혹은 ‘갱신’—되풀이되는 주부의 불륜 서사
- 3 후경화된 여성들—피해/가해의 정치학과 섹슈얼리티
 - 3.1 성 주류화와 ‘안정성’의 아이러니: 떠나는 은연에 대해
 - 3.2 ‘수몰’과 ‘몰수’: 부희의 성(castle)에 대해
- 4 그리고 미혼에 대해
- 5 나가며

1990년대 전경린의 소설은 주부의 ‘불륜’을 주요 소재로 삼아, 섹슈얼리티로 기존 삶에 반란을 꾀하는 여성을 그려내 왔다고 할 수 있다. 1999년에 발표한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은 전경린이 「염소를 모는 여자」 이래 계속해서 주부의 불륜을 소재로 하여 작품을 써냈기에 이제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즉 그녀의 ‘위기’를 증명하는 소설로서 불리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이때 전경린이 “간통은 진부하다”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서 다시 주부의 섹슈얼리티를 소재로 하여 작품을 써냈는지를 고민한다. 가리어진 여성들, 다시 말해 이 소설에서 후경화된 여성들이 어쩌면 힌트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다랐을 때, 범죄에 연루된 두 여성 은연과 부회가 눈에 띈다.

단행본에 이어 소설의 신문 연재본까지를 참고로 하여 이들 여성의 서사를 되짚어봄으로써 본고는 가정 내 여성이 지금까지도 쉽게 법에 의해 범죄의 ‘가해자’로서 위치 지어지는 현실과 이 소설이 맞닿아 있다는 점을 초점화해 바라본다. 지금, 여기와도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은, 1990년대 한국 사회 내 ‘여성 범죄’의 정치학을 노출하는 이 텍스트는 이렇듯 가정 내 여성이 쉽게 ‘가해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섹슈얼리티의 “몰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판단과 이어진다. 곧 본고의 관점에서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은 “여성의 쾌락적 삶의 평등성”의 획득을 위해, 무엇이 여성에게 ‘고통’을 주고 무엇이 여성에게 ‘쾌락’을 주는 지, 미혼의 식으로는 “개인적인 모랄”들이 끊임없이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여성 범죄’를 판결하는 이전과는 다른 광경을 선사할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국문핵심어: 전경린,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여성 범죄, 법, 성 주류화, 피해/가해의 정치학, 섹슈얼리티, 몰수, 쾌락

1 들어가며

1990년대 한국을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조명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작가 중 하나는 틀림없이 전경린일 것이다. 1995년 신춘문예 당선으로 문단에

등장한 그녀는 같은 해 겨울 「염소를 모는 여자」를 발표하며 이목을 끈다. 가정 주부 윤미소를 주인공으로 삼아, 삶의 반복을 배경으로서 밀어낼 수 있는 “자기 속의 걱정”¹을 소설은 말한다.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난데없이 염소를 맡아달라는 낯선 이의 전화에 시달리는 ‘나’, 즉 미소는 계속된 간청에 질려 염소를 아파트로 데려온다. 막상 염소를 집으로 끌고 와서는 난감함과 당혹스러움에 빠져있던 이때, 퇴근한 남편이 가차 없이 염소를 밖으로 내몰자 미소는 그에게 폭력적인 충동을 느끼며 오히려 염소를 살뜰히 챙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염소를 기르며 미소는 변화한다. 그녀는 염소를 묶어놓은 근처에서 밀회하는 사십 대 연인을 바라보다가는 활기를 찾고, 동네 청년에게서 좋아한다는 고백을 듣고 손가락에 입을 맞추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소설은 미소가 “놀라운 것은 나 자신까지도 남편과 공모해 나를 방치해왔다는 사실”²을 깨닫게 하며, 중국에는 “이미 오래전에 훼손된 집”³을 떠나도록 한다.

「꽃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새는 언제나 그곳에 있다」,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 등 「염소를 모는 여자」에서 이어지는 전경린의 이후 소설들은 염소 모티프와 더불어 주로 주부의 ‘불륜’을 소재로, 그간 흐릿하게만 포착되던 1990년대 한국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펼쳐놓는다. 이는 “전경린은 우리 문학사에 마녀들을 불러들임으로써 개성적인 모반과 반란의 세계를 구축한 작가”⁴라는 평단의 찬사를 불러들인다.

하지만 1999년 그녀가 발표한 장편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⁵에는 혹평이 가해진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주부의 불륜을 큰 줄기로 삼아 서사를 전개하는 전경린에게 “그것은 이미 『염소를 모는 여자』와 『바닷가 마지막 집』에서

1 전경린, 「염소를 모는 여자」, 『염소를 모는 여자』, 문학동네, 1996, 20쪽.

2 위의 글, 57쪽.

3 위의 글, 74쪽.

4 황도경, 「반란의 성, 반역의 삶—전경린론」, 『우리 시대의 여성 작가』, 문학과지성사, 1999, 202쪽.

5 전경린,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문학동네, 1999.

말해진 것이었다”⁶는 말이 건네진다. “감각과 감성의 힘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외에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심오해졌다는 인상을 줄 만한 어느 것도 없는 것도 같다”는, 즉 더는 전의 소설들과 구분되지 않은 채 그 전형성으로 말미암아 “통속적”⁷이라는 평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이 보태진다. 불륜이라는 소재만을 맴돌며 새로운 것 없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이 “위기”⁸로부터 전경린의 부단히 벗어나기를 당부한다.

본고에서는 이렇듯 전작과 구별되는 의미를 갖추지 못한, 작가에게 ‘위기’를 불러들인 소설로서 언급되는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을 재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전경린이 이 작품에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과연 무엇을 겹쳐 내며, 1990년대 한국의 어떠한 지평을 논하고 있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서른둘 주부 미소에 이어 서른셋의 미혼을 그리며 소설은 무엇을 가리키고 싶었던 것일까.

2 전경린 소설의 ‘위기’ 혹은 ‘갱신’—되풀이되는 주부의 불륜 서사

스물한 살에 만난 남자가 그의 전 생애 동안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 또한 단 하나의 남자만을 사랑하며 평생 동안 하나의 생을 온통 함께 사는 것. 우리의 냄새를 다른 냄새와 뒤섞지 않는 것, 나의 꿈은 그것뿐이었고 그것은 흡사 하나의 이념과 같이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⁹

서른셋을 맞이한 미혼은 이와 같은 생각을 제 신념으로 삼으며 남편 효경, 그리고 다섯 살 난 아들 수와 함께 단란히 살아간다. 그런 미혼의 삶이 파탄을 맞이한 것은 내연녀 영우가 찾아오고 나서이다. 영우는 제가 효경의 아이를 낙태했음

6 방민호, 「1999년 가을, 사유의 빈곤—전경린·윤대녕·공지영·김영하·엄우흠의 작품들」, 『소설과 사상』 제23호, 1999 가을, 337쪽.

7 위의 글, 337쪽.

8 위의 글, 337쪽.

9 전경린,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앞의 책, 26쪽. 이하 소설 본문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괄호 속에 쪽수만 표기.

을 당돌히 고백한다. 이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미혼의 표정으로부터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은 시작한다.

효경이 자신의 불륜을 부인하기도, 다시 용서를 빌기도 하며 이 년의 시간이 흐른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한적한 바다마을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효경의 제안에 미혼도 동의하여 이들 가족은 한 지방 도시로 향한다. 늘상 만성적이고 극단적인 조울증에 시달리던 미혼은 그곳에서 병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오지와도 같은 시골 동네에 차츰 적응해 나가고 있을 무렵, 미혼은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 외딴곳에 고립되기에 이르는데 이때 곤경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고 선의를 베푸는 남자 규를 만나게 된다. 좀처럼 이곳에 정을 붙이지 못했던 미혼은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에게 점차 마음을 뺏기게 된다.

규는 미혼에게 ‘구름 모자 벗기 게임’을 제안한다. 그는 게임의 유효 기간은 사 개월이며, 그 기간 동안 둘 중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게임은 끝난다는 룰을 설명한다. 게임이 끝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도. 미혼과 마찬가지로 아내와 아이가 있는 그는 이미 이 게임을 여러 번 해본 듯하다. “난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별어먹이느라 늙고 지쳐가는 소시민적인 삶보다는 수상쩍고 고독하고 흥가분한 단독자의 삶을 택했어요”(85)라고 규는 말한다.

둘의 게임이 시작된 이후, 소설은 반복해서 펼쳐지는 밀애와 그를 따르는 아슬한 순간들을 비춘다. 미혼은 게임의 의지에 자신을 맡기기로 한다. 그녀는 가족의 기일을 맞아 찾은 친정에서도 곧바로 밀회 장소로 떠난다. 평소답지 않게 한껏 치장을 하고 와서는 서둘러 친정을 떠나는 미혼에게 엄마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닌지 추궁한다. 빨리 돌아오라는 외침을 뒤로 한 채, “내 몸 안에서 터질 듯이 부풀어오르는 불안정한 활기와 긴장의 에너지”(187)를 감지하며 미혼은 오늘이 “내 일생에서 어쩌면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186-187)이라고 되뇌는다.

그리고 어느덧 미혼과 규의 관계를 둘러싼 소문은 마을의 이곳저곳에 퍼져가 견잡을 수 없게 된다. 끝내 효경에게까지 불륜 사실을 들킨 미혼은 가혹하리 만치 매를 맞게 되고, 이를 알게 된 규의 손에 이끌려 함께 먼 곳으로 떠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동을 하던 중 둘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미혼은 경미한 상처를 입은 반면 규는 뇌 손상이라는 치명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놓인 채 이들은 이별

한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버린 듯한 완료형의 나날 속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이름을 묻는 순간이란 그 본질을 다시 뒤흔드는 일이었다”(73)라고 역설하는, “부정하고 혼란스러운 관능”(146)에 마음껏 빠져드는 작중 이미흔의 행보는 과연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을 억압된 주부의 ‘성적 해방’이라는 맥락 안에서 읽도록 한다.¹⁰ 하지만 주부의 불륜과 성적 해방을 작가 전경린이 이전부터 작품의 주된 소재로 삼아왔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은 상술했듯 그녀의 소설이 더 이상 진전을 거듭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¹¹를 증명하는 텍스트로서 놓이기도 했다. 또는 전경린이 ‘폐쇄된 세계상’, “‘몸’의 부름에 응하는 한 인간의 삶”¹²에 몰입하여 이 소설에 와서는 역사, 그녀를 둘러싼 정치·사회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말았다는 비판도 가능케 했다.

한편 미흔이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욕망에 접속해 기존의 자신과는 다른 “또 다른 미흔”으로 탈주해나가는 과정¹³을 이 소설이 그려냈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시선도 있었다. ‘탈주’라는 용어에 착안해 미흔이 규의 도움으로 큰 자극을 받아 강밀도를 얻고 극대화되어 기존의 가치관에서 탈영토화한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즉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을 이전 작품과의 굳은 연장선상에서 읽는 시도도 존재했다. 최근 해석에 이르러서도 전경린의 전 작품 세계는 별다른 무리 없이 1990년대 “파탄을 향해 몸을 던지는 여성”¹⁴의 보고로서 일견

10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의 출간과 동시에 이는 ‘주부의 육체적 희열’을 가감 없이 묘사한 소설로서 호명된다. 「일탈의 사랑, 그 매혹과 파괴력」, 『한겨레』, 1999.7.20; 「억압된 욕망 속에서의 사랑은 환상일 뿐 “여자여 성적 본능을 노래하라”—전경린씨 장편《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경향신문』, 1999.7.27; 「남편 외도로 고민하는 30대 여인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 1999.8.2; 「여성 시각서 그린 ‘불륜’… 본보 연재 때 화제 만발」, 『동아일보』, 1999.8.7 등 참조.

11 방민호, 앞의 글, 337쪽.

12 윤지관, 「비평은 있다—신경숙·은희경·전경린과 관련하여」, 『창작과비평』 제30권 4호, 2002 겨울, 312쪽.

13 박현이, 「전경린의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론—여성인물 ‘미흔’의 변환과정을 중심으로」, 『문예시학』 제14권, 문예시학회, 2003, 163쪽.

14 김예니, 「1990년대 여성작가의 섹슈얼리티 재현방식 연구—은희경과 전경린의 초기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376쪽.

축약된다.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을 전경린의 작품 내에서 ‘위기’ 혹은 ‘지속’으로서 읽어내는 작업은 모두 이 소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로써 전경린의 소설이 섹슈얼리티를 경유해 지금, 여기의 어긋나 있는 무언가를 집요하게 가리킨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 가능하나, 그를 적극 해명하지 않는 한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이 전경린의 작품 중 어째서 축적된 ‘한계’, 혹은 의미 있는 ‘갱신’으로서 자리하는지를 답하긴 어려울 것이다.

간통은 진부하다. 결혼의 계약에 위배되는 사랑이란 문학적 소재는 요즘 독자들에게 충격적이지도 선정적이지도 않다. (...) 그러나 간통에 대한 집착을 그저 통속적이라고 보아넘기는 것은 태만한 생각이다. 우리는 그토록 진부한 것이 어째서 그토록 질기게 살아남는지,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은지 조금 궁리해볼 필요가 있다.¹⁵

본고는 이 같은 당대의 권유를 수락하여 소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 글은 조도를 높여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에서 후경화된 것들을 비추어보고자 한다. 정확히는 후경화된 여성들을 응시할 것이다. 섬뜩하게도 이들 여성은 모두 범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다.

3 후경화된 여성들—피해/가해의 정치학과 섹슈얼리티

3.1 성 주류화와 ‘안정성’의 아이러니: 떠나는 은연에 대해

미혼이 밀회를 위해 늘상 거쳐가는 곳, 그리고 규와 처음 만난 장소에는 각각 한 여성이 있다. ‘은연’과 ‘부희’를 미혼은 자꾸만 마주친다.

처음엔 이름도 없이 ‘휴게소 여자’라고 일컫곤 하던 은연과 미혼이 마음을

15 황중연, 「이줄테의 손녀들, 그들의 불륜과 소설—서하진, 전경린의 소설에 관하여」,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299-300쪽.

터놓게 된 건 비 오는 어느 날의 일이다. 가뜩이나 허름한 외관의 휴게소가 폭우로 인해 폐가와도 같이 보일 무렵, 미혼은 휴게소 집 안에서 살을 찢는 듯한 외마디 비명을 듣는다. 이어 맨몸으로 피를 흘리며 튀어나온 은연을 깨진 맥주병을 쥔 커다란 체구의 남자가 뒤쫓는 광경을 목격한 미혼은 그대로 차를 몰아 그녀를 아슬하게 태우곤 빗길을 내달린다. 독 위에 묶인 어미 염소가 줄이 허용하는 반경 바깥을 향해 몸을 당기고 서 있는 낯선 마을에 들어서고야 안심한 듯한 은연은 미혼에게 자기 서사를 털어놓는다.

열일곱 살에 강간을 당한 충격으로 절에 들어갔지만 이듬해 사실을 안 스님에게 내쫓겨 다방에서 일을 하게 된 은연은 그러다 “평생 나를 물고 씹고 찌르고 패대기를 치는 짐승”(113)인 남편을 만나, 죽음까지 생각했노라고 설명한다. 이윽고 그가 살인미수 죄로 감옥에 들어가 바로 이혼장을 넣었지만 불과 일 년 육개월 만에 출소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연을 쏟아낸다.

『구름 모자 벗기 게임』, 곧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의 신문 연재본에서 은연은 보다 솔직해진다. ‘나은연’이 아닌 ‘나용경’이라는 본명을 밝히는 그녀는 강간을 당했던 열일곱 살 때, 누가 범인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비친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학교에 계속 다니다 고3이 된 어느 날 한밤중 마을 두 집에 불을 지르고 말았다고 고백한다. 소설은 사건 이후 그녀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나열한다. 이를테면 남편이 채권자들에게 그녀를 고소할 것을 부추겨 지명수배범이 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가, 다시 막대한 빚을 지고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은연과 마주 앉아 사연을 전해듣는 미혼은 “너무나 많은 여자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¹⁶라는 말을 삼킨다.

자신의 소설은 미술의 콜라주 기법과 같이 “모호한 것들”¹⁷의 조각을 이어붙여 구성한 것이라고 역설하는 작가 전경린은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의 출간 무렵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 바 있다.

16 전경린, 「구름모자 벗기 게임 54」, 『동아일보』, 1998.9.19.

17 전경린·서희원, 「사랑이라 부르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하여」, 『문학동네』 제21권 3호, 2014 가을, 34쪽.

오랫동안 매 맞으며 살아온 여자들은 법의 보호 아래 마침내 집을 떠난
다 해도, 레스토랑에서 숟가락 놓는 일조차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다시
폭력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 어려운 일은 왜곡되고 거세된 자
신을 회복해 하나의 인간이 되는 일이다.¹⁸(강조는 인용자)

‘여성’과 ‘폭력’을 연결 지으며 전경린은 ‘법’의 보호적 기능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것은 전경린에게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어 보인다. ‘법’을 경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삶으로 돌아온 여성들을 전경린은 짚어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에서 과거의 일을 애써 뒤로 하고 법의 보호를, 남편과 이혼하고 더는 마주치지 않는 일상을 소원한 은연이 휴게소를 정리하고 마을을 떠나며 미혼과 가만히 손을 맞잡는 장면은 “신성함”(213)마저 자아내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같은 시기 작가의 발언을 참조해 본다면, 은연이 끝내 이전의 삶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법의 ‘보호’를 조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예감케 한다. 즉 범죄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다시 피해자로 변덕스레 위치되며 고단한 삶을 영위한 여성이, 멀리 떠난다면 남편에게 보낸 이혼장이 제 안위를 지켜줄 것을 믿으며 집을 나서는 부분은 ‘법의 보호’에 관한 일말의 신뢰를 드러내지만, 작가의 말을 고려했을 때 그 신뢰는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테다.

전경린의 소설이 1990년대 한국의 여성 범죄와 법을 은유하고 있음에 주목하는 본고에서는 법에 대한 불신을 연상케 하는 작중 은연의 행로, 깊게는 전경린을 비롯한 당대 여성의 사고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탐색하며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부정한 여자”(65) 부희가 두 번째 ‘모호한 조각’으로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와도 연관되는 까닭이다.

1990년대 한국에서 ‘여성 범죄’와 ‘법’이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방침이 강조되고 나서이다. 1995년 제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거론된 성 주류화 전략은 “모든 정책결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며, 교육 등을 통해 남성 중

18 전경린, 「여성성의 콤플렉스와 광채」, 『오늘의 문예비평』 제35호, 1999 겨울, 64쪽.

심적 주류제도와 사고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¹⁹는 점을 부각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당히 전환적 개념”²⁰인 ‘성 주류화’는 정부의 여성 정책뿐 아니라 여성운동의 주요 의제가 되어 정부와 여성운동이 동일한 여성 정책 담론으로 수렴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한국의 여성 정책 법안이나 제도들 속에 반영되어 양성평등 정책, 성 인지적 정책 등을 발전시킨다.

관련하여 가정폭력·성희롱 등 보다 “사적이고 미묘한 성문제”²¹에 대한 정책은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1997년 11월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칭 가정폭력특별법이 통과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며, 성희롱과 관련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1999년 2월 통과·개정된다.

그러나 1998년 제정된 한국의 가정폭력특별법을 실제 판결 사례와 함께 사후적으로 재고한 연구들을 참조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정폭력특별법의 혜택을 보거나 이로 인해 범죄자가 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대 ‘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 법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형사사법제도에서도 현실과 거리가 있는 적극적 적용이 어려웠던 법으로서 재정 의된다.²² 요컨대 이 법이 전제하는 “안전한 가정”²³에서 ‘안전’이란 가정의 주체인 남성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진실만이 판결문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본고의 관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여성 범죄’ 그중에서도 ‘여성’과 ‘폭력’의 문제가 겹치는 경우 가해자의 성별이 여성일 때 가해자가 남성인 사건에 비하여 최종 형량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설명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것은 주로 치밀하게 계획된 “잔혹한 사건”으로, 반면 남성의 살인은 아내

19 백진아, 「1990년대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 담론」, 『한국 젠더정치와 여성정책』, 나남출판, 2006, 65쪽.

20 김경희,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여성발전론과 성주류화 개념의 이해를 중심으로」, 위의 책, 220쪽.

21 심영희, 「한국 성정책의 형성과정: 1990년대를 중심으로」, 위의 책, 98쪽.

22 박미랑, 「가정폭력, 가족간살인, 그리고 판결문 속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읽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참조.

23 위의 글, 112쪽.

의 지속적 잔소리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건”²⁴으로 해석되어 형량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여성이 지속적인 폭력에 대하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구타 상황에서 도주하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을 적엔 ‘과잉방위’로 취급되어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여성에게 더욱 혹독한 비난이 쏟아진 사례가 대다수로 집계된다. 이는 다시 말해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이지 않고, 폭력의 현장에서 인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 이후에도 수많은 여성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손쉽게 자리매김 해왔다는 현실을 알린다.²⁵ 이에 따르면 만일 은연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해를 입힐 경우 간명히 무자비한 가해자로 위치 지어져 가볍지 않은 형량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게 된다. 더욱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먼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란 은연에게는 이미 효력이 없는 선택지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니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24 위의 글, 126쪽.

25 박미랑의 논문에서 거론되는 판결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여 이에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구타와 학대를 감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른바 ‘매맞는 아내 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 마땅히 피해자와 이혼을 하거나 수사기관 혹은 가정문제상담소에 신고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술이 터지게 맞는 상황에 대하여도 신체에 급박한 위협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기 어려웠다”—대전고법 2012.8.17. 2012노172 판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이혼을 하거나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가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곧바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몰래 먹여 잠들게 한 후 아령으로 내리치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 상황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행위나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난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것이 과잉방위나 과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수원지법 안산 2013.1.18. 2012고합104 판결.(위의 글, 127-128쪽에서 재인용)

이처럼 폭력의 피해자로서 영구히 남기를 거부한 여성들은 대다수 ‘이혼’, ‘외부의 도움’, ‘경찰 신고’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하지 않고 선불리 범죄를 저지른 잔학한 가해자로서 간단히 규정되어 왔다.

당대 법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의 은연은 소설의 결말대로 남편을 떠나서도, 혹은 상상을 보태 그녀가 다시 찾아올 남편의 폭력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 대항하더라도 평안을 얻기는 힘겹게 된다.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이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하던 1998년 7월에 시행된, 즉 그 전부터 효력에 관한 기대로 이슈의 중심이 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은연이라는 인물이 예견하고 있다면 마을의 ‘부정한 여자’ 부회는 무엇을 예시하고 있는 것일까. 명확한 이유도 없이, 공통점이 잘 엿보이지 않는 둘을 관찰자인 미혼은 왜 겹쳐내고 있던 것이었을까.

3.2 ‘수물’과 ‘몰수’: 부회의 성(castle)에 대해

미혼이 규와 처음 만났던 장소인, 외딴곳에 있는 집의 주인인 부회는 작중 사형을 언도받아 떠나고 없다. 하지만 그녀는 ‘부회가 간부와 함께 시아버지를 낮으로 찍어 죽인 사건’으로 마을에서 끝없이 회자된다.

우리가 그 마을로 이사를 갔을 때, 마을은 집단주술에 걸린 것처럼 하나의 소문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콩밭을 매거나 논에서 풀을 뽑아내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버섯을 따거나 산에 염소를 묶으러 갈 때나 밭에서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점심밥을 먹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다.

장날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으며, 음식점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다. 화원이나 목재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포도밭에 약을 칠 때도, 면사무소에서 서류를 땄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 옷이 벌겍게 올라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다. 농협에 돈을 빌리러 가서도, 파출소에서, 학교의 어머니 회의에서도, 버스를 놓쳐 계곡길을 걸어 들어올 때도, 낯선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도, 그 이야기를 했다.²⁶

26 전경린, 「구름모자 벗기 게임 7」, 『동아일보』, 1998.7.27.

이처럼 철저히 소문으로만 구성된 부희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연인이었던 한 대학생이 떠나자 열아홉 살의 부희는 만삭의 몸으로 홀로 남겨진다. 미혼모가 될 딸 때문에 골치를 앓던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식당에서 밥을 대어 먹던 공사장 인부에게 딸을 데리고 갈 것을 요구한다. 서른 중반의 가난한 농촌 총각이었던 남자는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향한다. 부희가 아들을 낳고, 또 이듬해에 딸을 출산하며 집 안에 웃음이 가득할 무렵, 그녀는 불현듯 시아버지를 살해한다.

새로 온 면사무소 계장이 알고 보니 부희가 낳은 아들의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 미혼에게 알린다. 다시 사랑에 빠진 부희와 면사무소 계장, 통칭 ‘간부’는 대낮에 집 안방에서 정사를 나누었고, 시아버지에게 현장이 발각되자 그를 함께 살해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사건 자체보다도 “독부”에 대해 쑥덕거리게 한 건 “나는 절대로 당신들이 말하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64)라는 부희의 맹랑한 발언이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그녀의 언행이 되려 오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희를 ‘독부’, 혹은 ‘부정한 여자’로 박제하도록 만들었다는 고발에는 열은 분노마저 느껴진다.

시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살인자, 다시 말해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로서 부희는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에 자리한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것이다. 어째서 이 소설은 ‘은연’에 이어 ‘부희’를 미혼의 주변에 배치하였는가? 앞서 은연이 휴게소에서 이따금 낯선 사내와 관계를 갖는 장면을 소설이 비추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경우, 주부의 ‘성적 해방’이라는 그간 평론가 및 연구자들에 의해 파악된 작품의 주요 주제를 더 짙게 강조하기 위함일까. 아니라면 ‘성적 해방’이 복수(複數)의 여성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싶었던 것일까.

법의 판결이 현실 자체를 구성해 내기도 한다는 “법적 허구(legal fiction)”²⁷의 개념은 이때 중요해진다. 분명 부희가 소문에 의해 ‘구성’된 것은 그녀에게 사형이 언도된 이후의 일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부희가 법의 판결에 의해 직조된 인물이라는 지점은, 침묵하던 은영이 본명

27 오정진,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페미니스트 법이론의 전개』, 세창출판사, 2018, 296쪽.

을 밝히고 나서는 미묘하게 다른 세계, 즉 소설의 연재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사 가기 사흘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마지막까지 계속된 이야깃거리는 부희와 그 간부가 형을 얼마나 받을까, 하는 논란이었다. 여자들과 나이 든 노인들은 그들이 지은 죄를 보아서 최소한 무기형은 받아야 마땅할 것이고 어쩌면 교수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이나 농지위원들과 포도 농장에 다니는 일부 남자들은 어쩌면 자기 방어가 인정되어 형이 가벼워져 곧 석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²⁸

흥미롭게도 연재본에서는 부희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닌 불과 며칠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설명된다. 무기형이 선고될지, 교수형으로 판결이 날지 혹은 결국 석방으로 귀결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된다. 도중에 부희의 남편이 ‘그녀의 계약으로’ 친부살해의 혐의로 잠시 잡혀들어가기도 했더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렇듯 ‘잔혹한 살인자’라는 단일한 형상으로 쉽게 짜 맞춰지지 않는 연재본의 부희는, 범죄의 가해자가 ‘아닌’ 존재로서의 그녀의 삶을 새롭게 되돌아볼 수 있게 돕는다.

지금은 길을 새로 뚫어 그 집이 길가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산속에 있던 집이었다. 그 집에 유난히 살결이 흰 여자가 살았는데, 그 집 남자가 늘 부희라고 불렀다. 부희는 남편보다 열서너 살이나 더 어렸고 갈갈거리고 잘 웃었다. 어쩌다 그 집 근처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아버지와 남편은 들에 나가고 없고 부희가 두 아이를 마루에 앉혀놓고 홀라후프를 돌리거나 줄넘기를 탁탁 넘으며 갈갈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60-61)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처럼 갈갈거리며 잘 웃던 부희의 일상이 일

28 전경린, 「구름모자 벗기 게임 8」, 『동아일보』, 1998.7.28.

순 무너진 순간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

그 집 영감은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가 낳은 핏덩이가 자기 손자가 아니라
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부회를 확대하고 늘 욕지거리를 퍼부어댔다. 아
들에게는 쓸개도 없는 놈이라고, 며느리에게는 젖 떼자 가량이 벌린 잡
년이라고…….

부회는 다음 해에 여자에 하나를 더 낳았는데, 영감은 자기를 닮은 핏
덩이가 여자애였기 때문에 또 욕을 해댔다.(63)

소설에서 짧게 지나가고 마는 이 대목은 부회와 시부의 관계에 심상치 않은 변화
가 생겼다는 사실을 선명히 한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부회가 낳은
아이가 제 핏줄이 아님을 눈치챈 시부는 그녀에게 욕을 퍼붓고 확대한다. 연재본
의 부연에 의하면 “자주 성적인 모욕까지 가”²⁹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는, 부회가
첫 아이를 갖 낳은 무렵부터 그 아이가 커서 여동생과 뛰어놀 만큼의 시간이 흐
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녀를 희롱하고 핍박한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은 극히 일부일 뿐, 알다시피 단행본에서 부회는 마을에서 ‘부정한 여자’로
서 정돈된다.

“여성이 저지르는 치정살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여
성을 착취하고 홀대해온 결과라는 사실만큼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³⁰는 살인 전
담 전문 수사관의 발언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피해들이 흔히 법문화
에 의해 피해로 인식되거나 보상받지 못한다는, 다시 말해 “만연해 있고 비가시
적인 공포”³¹가 어떻게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여성
범죄’와 ‘법’에 관한 진술은 부회를 향해 있다. 부회가 담고 있었을 비가시적인
감정은 시부의 합당한 충격, 그리고 그녀가 ‘잔혹한 가해자’라는 법의 판결과 그

29 전경린, 「구름모자 벗기 게임 23」, 『동아일보』, 1998.8.14.

30 슈테판 하르보르트, 김희상 역, 『그녀는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알마, 2011, 54쪽.

31 로빈 웨스트, 「여성의 쾌락적 삶에 있어서의 차이—페미니즘 법이론에 대한 현상학적 비
판」, 양현아 편역, 『평등, 차이, 정의를 그리다—페미니즘 법이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105쪽.

로 인한 마을 사람들의 합리적 역추론에 의해 자취를 감춘다. 아니, 감추어졌다는 표현마저 무색할 만큼 단 한순간도 드러나지 않는다. 소설의 연재본과 단행본에서 노출되는 진실의 양을 달리함으로써 전경린은 시간이 갈수록 부희가 ‘소문’에 뒤덮이고 있음을 연출한다.

여성 범죄에 있어 ‘여성의 비가시적인 공포’를 헤아리는 일은 그녀를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다. 2005년부터 미국 과반수의 주에서 도입하고 있는 ‘성 안 독트린(castle doctrine)’ 법은 여성이 정당방위라는 이름 하에 치명적 힘(deadly force)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확장을 의도한다. 앞서 존재하는 정당방위법에 변화를 더해,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 상해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느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도 ‘침입자’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는 특히 가정폭력에서 이어진 살인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사례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³² 반면 한국에서는 1998년 시행된 가정폭력특별법에 이어 2018년에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castle), 곧 ‘가정 내 정당방위’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³³ 최근까지도 가정 내에서 여성은 ‘가해자’로서 지목된다.³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한다면 학대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사회 통념인 “후퇴의 의무”³⁵만이 그녀에게 뒤늦게 부과된다.

부희가 범죄의 가해자라는 판결의 결과는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에서 그녀가 피해자로서도 삶을 영위했다는 진실은 작중 댐 건설을 앞두고 그녀의 집(castle)이 끝내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상

32 Cassidy, M. A. and D. Trafimow, “The influence of patriarchal ideology on outcomes of legal decisions involving woman battering cases: An analysis of five historical eras”,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39, No.2, Elsevier, 2002, pp. 235-245; 박미랑, 앞의 글, 126-128쪽 참조.

33 김정혜, 「평등권으로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화젠더법학』 제12권 1호, 젠더법학연구소, 2020 참조.

34 김다슬, 「맞는 아내 넘쳐나도 한 번도 인정 못 받은 ‘정당방위」, 『한겨레21』 제1393호, 한겨레신문사, 2021; 「남편 가정폭력 30년 시달린 50대 여성, 살인미수 ‘집유」, 『여성신문』, 2023.3.28.

35 박미랑, 앞의 글, 130쪽.

황과 겹치며 사라져 버린다.

사라진 부회는, 미혼이 가만히 그녀를 생각하며 “왜 이 땅에선 개인적인 모랄이 생기지 않는 걸까”(119)라고 읊조리게 한다. 여기서 미혼이 되뇌는 ‘개인적인 모랄’이란 여러 갈래로 말해질 수 있겠으나, 앞서의 ‘여성 범죄’와 ‘법’의 관계를 고려했을 경우, 이는 여성이 쉽게 범죄의 ‘가해자’로 내몰리는 상황 등이 섹슈얼리티의 “몰수(expropriation)”³⁶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판단과 맞닿는다.

‘부정한 여자’ 부회가 점차 가해자로 확정되며 종내에 그녀의 집이 수몰되는 상황은, 미혼과 독자에게 여성 범죄와 법의 관계에 있어 여성은 가해자로 판정받음으로써 즉 그 ‘순응성’으로 다시 사회를 돌아가게 할 임무를 부여받아 “적합한 여성”³⁷을 양산한다는 관념을 강화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부회는 말했듯 ‘몰수’의 감각, 법적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배제된 결과로서 여성이 과한 형벌을 부여받고 있다는 의식 또한 일깨운다. 법의 성적 불평등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욕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규범적 결론에 반하여, 법적 평등이란 정확히 욕망할 만한 무엇이라는, 나아가 직접적 쾌락주의로의 이동이 평등의 추를 다시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을 품게 한다. “여성의 쾌락적 삶의 평등성”³⁸의 획득을 위해, 무엇이 여성에게 ‘고통’을 주고 무엇이 여성에게 ‘쾌락’을 주는지, 미혼의 식으로는 ‘개인적인 모랄’들이 끊임없이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여성 범죄’를 판결하는 이 전과는 다른 광경을 선사할 것임을 이 소설은 후경화된 여성들을 앞세워 이야기한다.³⁹

36 로빈 웨스트, 앞의 글, 125쪽.

37 프랜시스 하이덴슨, 이영란 역, 『여성과 범죄』, 나남, 1994, 70쪽.

38 로빈 웨스트, 앞의 글, 147쪽.

39 한편 앞서 은연이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삶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단행본에는 생략된 은연의 지난 서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연재본에서 은연은 삼 년 전, 도로 공사하는 함바집에서 일을 하다가 인부 하나를 만나 일 년간 동거를 한 적이 있다.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넘기며 은연이 묘사하기를, 그 남자는 “머리핀을 사다주고, 시장길을 지나다가 원피스도 사주고, 고기 구워 먹이고, 겨울밤엔 얼음처럼 차고 시린 사과 세 알을 품 안에 넣어 오기도 하고, 발을 씻어주기도”(전경린, 「구름모자 벗기 게임 54」, 『동아일보』, 1998.9.19) 한다. 아이도 주변에 맡긴 채 그 남자와 오롯

4 그리고 미혼에 대해

미혼은 매달 시어머니 앞으로 용돈과 함께 편지를 써 보냈던 여자였다. 야외로 소풍을 나갈 때면 네 가지 김밥을 싸던 여자였다. 닭요리 전문가였으며 미싱을 사서 주방 장갑을 만들고 난 뒤, 곧바로 아이와 나의 트렁크 팬티 만들기에 도전했던 여자였다. 꽃 화분들을 잘 키웠고, 가구 위에 레이스를 짜 덮기를 좋아했다. (...) 그런 미혼은 사라져 버렸다. (...)

아,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부유하는 날벌레 속에서 그만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싶다. 그리고 피고름 같은 몇 방울 눈물을 짜내 버리고 그 여자를 잊고 싶다. 미혼, 몇 년간 불러본 적도 없는 이름이, 지

이 시간을 보냈던 이 시간을 은연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회상한다. 그 순간을 영원으로 삼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을 무렵, 상술했듯 남편이 제 채권자에게 그녀를 고소할 것을 부추겨, 은연은 지명수배범으로 유치장에 갇힌 채 다시 남편의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은연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은연이 과거 다른 남자와의 행복한 때를 만추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육체적 쾌감보다는, 이를테면 심적 쾌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드 많았는데, 나한테 참 잘해주고 예뻐해 준”(위의 글) 그 남자와의 일상 묘사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한국 ‘법’을 감안해 은연의 삶에서 평안을 찾기란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이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면 그 방식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이어 던져볼 수 있다. 한편으로 단행본이 좀 더 암울한 세계를 그리고 있다고 여긴 본고에서는, 은연의 본명에 이어 왜 삼 년 전의 남자를 삭제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게 된다. 앞 절에서 면밀히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에게는 마치 삼 년 전의 연인을 연상케 하는, 묵묵한 조력자가 있다. 단행본에도 등장하는, 그녀의 사연을 어디선가 전해 듣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그 남자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고, 꼭 밤 한 시경에 은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그의 얘기를 할 때면 은연의 낮빛은 눈에 띄게 밝아진다고, 소설에서는 설명한다. 이미 따로 가정도 있는 이 남자의 제안으로 은연은 다시 떠나, 휴게소를 정리한 돈으로 국수집을 차리기로 하며 자취를 감춘다.

정리하자면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때, 만일 은연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즉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돌파구’를 찾는다는 해석에는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 은연이 있어 보인다. 휴게소에 그대로 남아 있는 편이 관계를 더 많이 갖는 방편이 되었을 테니 말이다. 전례를 상기해 본다면 은연은 또 법의 힘을 빌린 남편의 계약으로 다시 남편의 앞에 서게 되겠지만, 자신을 과묵히 돕는, 매일 새벽 한 시면 함께 통화하는 그 남자와 멀리서 동행하는 삶을 여러 남자와의 성관계에서 얻어지는 쾌락보다는 조금은 더 큰 쾌락으로 삼으며 은연은 출구 없는 자신의 인생을 견디고 있다고 답할 수 있다.

금 와서 담즙이 거꾸로 넘어오고 혈관이 떨리도록 다정하게 느껴진다. 그 이름은 지금 나를 진동시켜 살을 흔들고 뼈를 어긋나게 하고, 마침내 지진 같은 혼동에 빠뜨리고 있다. 나는 그 낯선 여자를 이해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고 싶다. 다른 남자와 통정한 여자, 그것도 맹렬한 욕망에 빠져서 제멋대로 놀아난 여자였지만 따지고 보면 나쁜 여자는 아니었다고 관대하게 말하고, 그 뒤로는 영원히 합구하고 싶다. 심지어 영문도 모르는 채 엄마를 잃은 아들을 위해 실은 그 여자가 모자랄 정도로 착한 여자였다고, 어디서든 불쌍한 꼴 당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를 달래고 싶다.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것은 느닷없이 이내 눈 속에 들어와 각막을 뜯어먹고 망막을 터뜨리려 한다.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아버릴 수가 없다. 두 눈을 부릅뜨고 견딘다. 어찌려는 것일까? 어떤 남자는 간통한 아내를 살해했다. 나도 그때 그랬어야 했던 것일까?⁴⁰

본고의 범위에서 소설 연재본과 단행본의 차이를 일일이 밝혀 대조하기란 어려운 일이나, 좀 더 살펴보자면 처음부터 미혼의 시점에서 서사를 전개하는 단행본과는 달리, 『구름 모자 벗기 게임』은 “나에게도 아내가 있었다”⁴¹는 남편 효경의 독백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소설이 초반 스물네 차례 연재되는 동안 그는 화자의 자리를 차지해 미혼의 불륜 사실을 밝히곤 ‘어떤 남자는 간통한 아내를 살해했다. 나도 그때 그랬어야 했던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미혼이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직장 때문에 산골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등을 늘어놓던 그는 미혼에게 화자의 자리를 넘길 때가 다가와서야 수년 전 영우라는 여자애와 관계를 가진 바가 있었고, 이후 죄책감을 느껴 상심한 미혼을 병원에 데려가려는 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허사였음을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살해했어야 마땅한 것인지를 묻던 효경은, 자신의 불

40 전경린, 「구름모자 벗기 게임 3」, 『동아일보』, 1998.7.22.

41 전경린, 「구름모자 벗기 게임 1」, 『동아일보』, 1998.7.20.

를을 터놓고 나서 “본질적으로 도덕성이 강한 사람”⁴²인 자신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로운 노력들을 행했는지를 역설하고는, 곧바로 미혼의 불륜을 상세히 풀어놓는다. 이처럼 자신의 불륜은 뒤늦게 언급해도 상관없는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 아내의 불륜은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는 효경의 시각은 그가 사건 이후 가정을 수호하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겹쳐 ‘가장에 대한 면책권’, 즉 “가장으로서의 남성을 가정의 안정 유치 측면에서 배려”⁴³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되어있는 한국 사회의 규율을 또렷이 의식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 이보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드러난다.

소설의 결말부에서 효경은 미혼과 헤어진 지 사 개월이 되었을 무렵 그녀의 거처에 들이닥친다. 오랫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던 것인지, 집 주소를 옮기자마자 곧바로 눈앞에 서 있는 효경에게서 미혼은 “금세라도 목을 조를 것 같은 살의와 격정과 절망의 힘”⁴⁴이 그의 몸에서 일렁이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난데없이 미혼을 찾아와 무작정 그녀를 차에 태워 한 해수욕장 마을에 도착한 효경은 다음의 말, “다시는 예전 같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너에겐 돌아올 집이 없어”⁴⁵라는 말을 참았던 듯 쏟아낸다. 너에겐 돌아올 집이 없으니, 다시는 집으로 귀환할 수 없으리라는 통보를 마치 무거운 형벌처럼 내린다.

이목을 끄는 것은 그 이후 미혼의 변화이다.

나는 낮선 거리를 혼자 걷고 낮선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낮선 상점에서 신문과 과일과 맥주와 건전지 따위를 삽니다. 그리고 이 낮선 곳에서

42 “본질적으로 도덕성이 강한 사람이어서 아내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꼈고 또 소유에 민감해서 가정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아이와 아내를 책임지려는 남자이고, 남녀 간의 부정하게 떠도는 어지러운 관계를 경계했고 교통법을 지키듯 이 결혼의 규율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전경린, 「구름모자 벗기 게임 15」, 『동아일보』, 1998.8.5)로 효경은 자신을 소개한다.

43 박미량, 앞의 글, 135쪽.

44 전경린, 「구름모자 벗기 게임 76」, 『동아일보』, 1998.10.17.

45 전경린, 「구름모자 벗기 게임 77」, 『동아일보』, 1998.10.19.

공교롭게도 사설 우체국의 여직원이 되었어요. 지금 퇴근을 해 광장 가
장자리에 놓인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저녁은 마치 커튼을 친 커
다란 실내 같군요. (...)

지금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립니다. 그는 내가 다니는 사설 우체국 근처
에 있는 중학교의 수학 교사입니다. 그는 우표를 사러 왔고, 등기를 부치
러 왔고, 괜히 와서 잡지책을 넘기다가 가기도 했어요. 아직 어리고 길쭉
한 몸을 가지고 있고 티베트의 라사에서 샀다는 물고기 장식이 달린 긴
목걸이를 옷 속에 숨기고 있습니다. 싱그럽고 예의 바르고 진지하고 모
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아직 아무런 편견도 없는 너무나 건강한 젊은
남자. 두 달 전의 수요일 퇴근할 무렵 들른 그는 나에게 저녁을 사고 싶
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꿈에도 모
를 거예요. 마치 날카로운 보석을 삼킨 듯 몸 안이 다시 환해지던 그 통
증 어린 느낌을.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나
는 내 생의 처음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
지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뿐. 어쩌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
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좋아요. 70년이 지난 뒤에야 그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사랑을 깨닫는다 해도,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함
께 저녁을 먹는 이 아름다운 약속이 가능한 한 더 오래 계속되었으면 하
는 바람밖에는……. ⁴⁶

죽음의 공포를 동반한 효경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역설적으로 미혼은 홀로서기
에 적응해 나간다. 연재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미혼은 한 남자를 기다린다. 사설
우체국의 여직원이 된 그녀는 ‘아직 아무런 편견도 없는 너무나 건강한 젊은 남
자’와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다. 통증마저 느낄 정도로 미혼은 세계 주어진 새로
운 일상의 가능성을 아프게 감지한다. 남자와 수요일마다 함께 저녁을 먹는 나날
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너에겐 돌아갈 집이 없다’는 저주와 같은 말

46 전경린, 「구름모자 벗기 게임 78」, 『동아일보』, 1998.10.20.

은 도리어 미혼에게 집을 떠나 다른 일상의 가능성을 풀어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단행본에서 효경과 미혼은 다른 갈래의 이별을 겪는다. 여기서 효경은 미혼의 새 거처에서 이상할 정도의 ‘평화’와 ‘태연함’을 목격하고 만다.

그는 방 한구석 싱크대에 놓인 두어 개의 냄비와 새 팬과 선반 위의 접시들과 밥공기, 벽에 걸린 가위와 국자 따위를 재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리고 침대와 텔레비전과 비디오, 작은 테이블과 나무 의자와 화분 두 개를 차례로 노려보았다. 그리고 베란다에 널린 팬티스타킹과 브라지어에서 아직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롭고 태연해 보았다.

그는 그 평화와 태연함을 응징이라도 하듯 화분 두 개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맞은편 벽을 향해 내던졌다. 화분이 깨어져 방바닥에 흩어지고 젖은 흙이 방바닥과 이불 위에 쏟아졌다. 하나의 화분 속에 그렇게도 많은 흙이 담겨 있었을까…… 방은 이내 발 디딜 틈이 없어졌다. 그는 조용한 동작으로 비디오와 텔레비전의 전원을 끄고 나의 팔을 잡아끌었다.(271)

연재본에서와 달리 단행본에서 효경은 미혼의 새집에서 ‘평화’를 감지하곤 방안의 정돈된 물건들을 한참 노려보다가는, 공간을 일순에 망가뜨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에 미혼은 더욱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효경이 돌로 내려치면 난 비명도 지르지 않고 죽을 생각”(274)에까지 침잠한다.

마찬가지로 너에겐 돌아올 집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는 단행본의 미혼은 그러나 오 개월쯤 지난 뒤, 효경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그는 서점을 정리했고, 네 몫의 돈을 보내줄테니 아파트를 얻으라는 말을 전한다. 원한다면 방학때나 주말에 언제든지 아들 수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우리에게 인연이 남아 있으면 또 만나겠지. 아니면 이렇게 끝이 날 것이고…… 너무 심란해하지 말고, 어쨌든 잘 살아. 혹 우리, 다시 연애가 되면 그때 새로 살림 차리자”(281)는, 다시 만날 가능성을 적게나마 열어두는 그의 농담 같은 전화에 미혼은 낯설어하며 답을 하지 않는다. 똑같이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홀

로 ‘폭력’과 ‘살의’와 ‘비명’과 ‘죽음’에 더 쉽게 쫓기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란 그녀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테니 말이다. 그러나 미혼의 ‘평화’를 목도한 이후 침습하는 효경의 이 목소리는, 예상보다 미혼을 흔들리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낮은 도시에서 일 년이 넘도록 누구도 깊이 사귀지 않고 살아왔다. 일 년 동안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건 거울이라고는 전혀 없는 벽의 세상에서 사는 것과 비슷하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반향이 없는 삶. 안개가 아직 쓰레기 더미와 뒤엉켜 잠들어 있는 박명의 시간에 대도시의 좁고 가파르고 싸늘한 빌딩 숲길을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 기분이다. 안개와 모래가 뒤섞인 바람이 몽클몽클 부는 회색 사막을 걷는 듯 두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고…….

언젠가 문 없는 벽을 지나온 것 같다. 그 후론 나를 괴롭힐 것이 남아 있지 않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평화. 가난과 고독, 불쑥불쑥 치솟는 화염같이 살갓을 데우는 기억들…….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도 생에 대한 나의 의욕은 불가사의하다.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며 세상을 향해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미혼이에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구요? 글썄요. 어쩌면 그건 아주 평범한 일이죠. 문제는 그것이 장롱 속에 잠들어 있던 나를 깨웠다는 것이예요. 내가 나를 화약처럼 불붙여 상상력의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이겠지요…….’(283)

효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뒤, 미혼은 ‘존재에 대한 반향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평화, 가난과 고독, 불쑥불쑥 치솟는 화염같이 살갓을 데우는 기억들’만이 그녀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자신을 소진한 것이 제게 있었던 일이었노라고 미혼은 정리한다. 티베트 라사에서 샀다는 목걸이를 옷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와 다시 탐색할 성적 쾌락의 세계에 미혼은 홀연히 뛰어들지 못한다. 그녀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버린 듯한 완료형의 나날 속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

의 이름을 묻는 순간이란 그 본질을 다시 뒤흔드는 일이었다'고 힘주어 말하는 미혼이 은연, 그리고 부희와 마주쳐가며 '부정하고 혼란스러운 관능'에 더욱 몰입하는 모습을 따라가는 전경린의 이 소설은, 미혼과 마주하는 은연과 부희가 가리키는 바가 섹슈얼리티의 몰수를 전제로 하는 여성 범죄와 법의 관계라는 점을 인지했을 때, 미혼의 '쾌락'을 '여성의 쾌락적 삶의 평등성'을 획득하여 법적 평등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읽도록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소설은 미혼이 집을 떠나 (성적)쾌락을 탐험하는 선택지를 먼저 엿보게 한 뒤, 그를 거두어들이고 다른 세계를 재현함으로써 직접적 쾌락주의로의 이동, 미혼의 언어로는 '개인적인 모탈'을 쌓아가는 일이란 집을 나선 여성이 간명히 쟁취하기 어려운 것임을 보인다. '안전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목소리로부터 놓여나 그 쾌락적 삶으로 평등의 추를 움직이는 일의 곤란을 적어낸다. 이때 미혼은 소설의 맨 처음, 즉 남편의 음성으로 인지되는 삶으로 다시 끌려들어 가 후경화된다.

5 나가며

산골 마을로 이사해 들어왔을 때, 미혼은 언덕길을 따라 키 작은 노파가 검은 염소 두 마리를 끌고 구르듯이 위태롭게 내려오고 있는 장면을 바라본다. “메마른 풀덤불 같은 재색 머리카락과 판화 칼로 그은 듯한 굵은 주름살들, 부적의 글자처럼 불길하고 추상적인 얼굴 표정, 반으로 접힌 굵은 허리”(33)를 지닌 이 노파를 미혼은 어째서인지 한참을 쳐다본다. 그리고 미혼은 분명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노파의 흐릿하게 몽개진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겹쳐지는 한순간이 있었다고 읊조린다. 노파의 얼굴에 실린 부적이 스스로 풀려 나에게로 씩워지는 느낌, “그 불가해한 고통과 두려움의 얼룩이 내 가슴을 짓누르”(33)게 되었다고 말이다.

이사 온 뒤 새벽마다 미혼의 집 뒤에 염소를 묶어놓고 갔다가 해 질 녘에 풀어가는 이 여성 노인은 소설의 후반부에서 미혼의 불륜이 끝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녀를 찾아와 매섭게 노려보며 염소 울음소리를 못 들었느냐고 따져 묻는다. 염소들은 간밤 그녀의 집 근처에서 그만 죽어버렸고, 노인은 마치 미혼이 염소들을 죽이기라도 한 것처럼 “눈을 부라리며 욱박”(263)지른다. 이 행동은 다 무엇

일까. 어떤 기대 속에서 노인은 미혼의 집에 새벽마다 염소를 묶어놓고 갔던 것일까. 그 이유는 끝내 알 수 없는 것으로 서술되지만, 노름만 일삼던 남편이 한 손님과 관계를 의심해 그녀의 집을 부수고, 두 아이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해 미쳐버렸다가 정신이 돌아온 것이 노인이 지나온 길이라는 소설 속 진실은 전경린이 오래도록 검은 염소를 여성 섹슈얼리티의 상징으로서 배치하였다는 지점을 함께 고려했을 때, 노인이 미혼의 불륜을 나름의 기행으로 지지함으로써 ‘불가해한 고통과 두려움의 얼룩’을 조금이나마 지우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연재본에서의 노파의 남편이 아무런 징벌 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소문을 참고로 한다면, 그녀 또한 법에서의 성적 불평등을 의심하는 주체는 아닐까. 물론 두 아이가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이 노인, 곧 인실댁 할머니가 어떠한 과거를 지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기에 그녀를 곧장 해석해내는 일이란 요원하다. 그러나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이 여성 범죄와 법의 은유를 담고 있음에 주목한 본고에서는 은연과 부회, 그리고 미혼과 인실댁 할머니까지를 등장시키는 이 소설이 비록 실패에 그치기는 하나 다른 여성의 ‘쾌락’을 지지하는 장면까지를 담아냄으로써, 섹슈얼리티의 ‘몰수’에 반하는 여성이 다시 다른 여성의 집에 염소를 묶으며 여성의 ‘고통’이 고통으로서, ‘쾌락’이 쾌락으로서 인식되기를, 다시 말해 법적 권력의 동등성을 쟁취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역설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전경린, 「구름모자 벗기 게임」, 『동아일보』, 1998.7.20~1998.10.20.

_____,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문학동네, 1999.

『경향신문』 『동아일보』 『여성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단행본

심영희 외, 『한국 젠더정치와 여성정책』, 나남출판, 2006, 65-220쪽.

양현아 편역, 『평등, 차이, 정의를 그리다—페미니즘 법이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105-147쪽.

윤진숙 편, 『페미니스트 법이론의 전개』, 세창출판사, 2018, 296쪽.

전경린, 『염소를 모는 여자』, 문학동네, 1996, 20-74쪽.

황도경, 『우리 시대의 여성 작가』, 문학과지성사, 1999, 202쪽.

황중연,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299-300쪽.

슈테판 하르보르트, 김희상 역, 『그녀는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알마, 2011, 54쪽.

프랜시스 하이덴슨, 이영란 역, 『여성과 범죄』, 나남, 1994, 70쪽.

논문

김다슬, 「맞는 아내 넘쳐나도 한 번도 인정 못 받은 ‘정당방위」, 『한겨레21』 제 1393호, 한겨레신문사, 2021, 64-67쪽.

김예니, 「1990년대 여성작가의 섹슈얼리티 재현방식 연구—은희경과 전경린의 초기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375-410쪽.

김정혜, 「평등권으로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화젠더법학』 제 12권 1호, 젠더법학연구소, 2020, 147-178쪽.

박미랑, 「가정폭력, 가족간살인, 그리고 판결문 속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읽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105-142쪽.

박현이, 「전경린의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론—여성인물 ‘미혼’의 변환 과정을 중심으로」, 『문예시학』 제14권, 문예시학회, 2003, 243-258쪽.

방민호, 「1999년 가을, 사유의 빈곤—전경린·윤대녕·공지영·김영하·엄우흠의 작품들」, 『소설과 사상』 제23호, 1999 가을, 333-348쪽.

윤지관, 「비평은 있다—신경숙·은희경·전경린과 관련하여」, 『창작과비평』 제 30권 4호, 2002 겨울, 298-314쪽.

전경린·서희원, 「사랑이라 부르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하여」, 『문학동네』 제21권

3호, 2014 가을, 18-50쪽.

전경린, 「여성성의 콤플렉스와 광채」, 『오늘의 문예비평』 제35호, 1999 겨울, 61-67쪽.

Cassidy, M. A. and D. Trafimow, “The influence of patriarchal ideology on outcomes of legal decisions involving woman battering cases: An analysis of five historical eras”,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39, No.2, Elsevier, 2002. pp.235-245.

Abstract

Female Crime and the Metaphor of the Law in Jeon Gyeong-rin's Novel in the 1990s

Lee Hannah

It can be said that Jeon Gyeong-rin's novels in the 1990s took a housewife's 'infidelity' as the main subject and portrayed a woman who seeks rebellion against her existing life with her sexuality. *A Special Day That Will Only Be One Day in My Life*, published in 1999 Jeon Gyeong-rin has continued to write works about housewives's infidelity since *Woman Driving a Goat*, so there is nothing new any longer, that is, it has also been called a novel that proves her 'crisis'. In this paper, I wonder why she wrote her novel based on the sexuality of housewives again, regardless of Jeon Gyeong-rin's remark that "adultery is banal." When we come to the idea that women who are being hidden, in other words, women who have been post-cured in this novel probably can give us some hints, two women, Eun-yeon and Mi-heun, who appear as perpetrators or victims of crime stand out.

By retracing the narratives of these women by referring to books and serialized versions of novels in newspapers, this study focus on that this novel is in contact with the reality that women in the family are easily positioned as 'perpetrators' by the law. This text which exposes the politics of 'women's crime' in Korean society in the 1990s, not so far off from here and now, leads to the judgement that the situation in which women in the family are easily driven out as 'perpetrators' of crimes stems from the "expropriation" of sexuality. That i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paper, *A Special Day That Will Only Be One Day in My Life* is emphasizing that, for obtaining "the equality of women's pleasure life", what brings women 'pain' and what brings women 'pleasure',

in Mi-heun's way, letting "individual morals" be shared continuously it would present the different sight of judging 'women's crime'.

Key words: Jeon Gyeong-rin, *A Special Day That Will Only Be One Day in My Life*, women's crime, law, gender mainstreaming, the politics of damage/harm, sexuality, expropriation, pleasure

논문제출 / 2023. 07. 20.

논문접수 / 2023. 07. 23.

게재확정 / 2023. 08. 04.